

# 이낙연 “尹 오만 · 불통 확인”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 관련... “국민 · 분노 걱정 몰라...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국민의힘 ‘이재명+조국 심판’ 관련 “스스로 흠 많은 여당 입장서 할 소리 아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분노나 걱정을 이렇게 모르는 대통령이려면 중간에 그만두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통령의 태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엇그저께는 3살 짜리 아이가 응급실을 빙빙 돌

리며 “그런 것을 미리 완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 뭔가 불 속으로 대통령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야당에 더 도움이 됐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며 “여야가 실수를 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공생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등쌀에 제 3세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양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스스로 흠이 많은 여당, 권력을 가진 여당의 입장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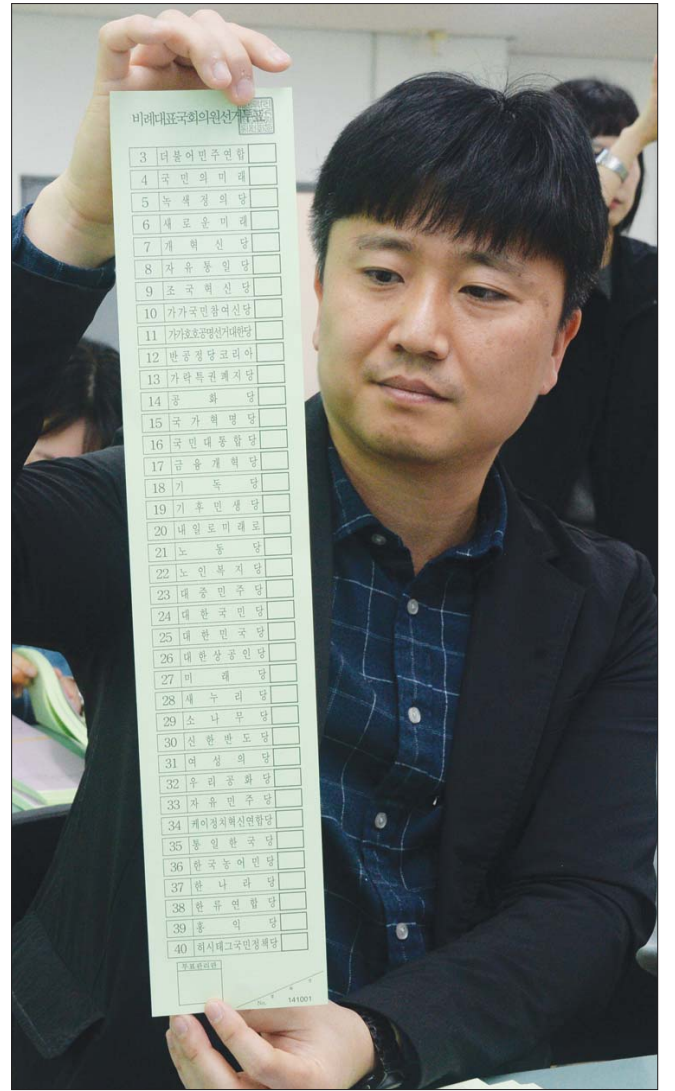
며 “법의 문제는 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자들이 범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사태는 더 계속되면 안 된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세력으로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부진한 당 지지율에 대해선 “이대로 가면 22대 국회는 보나 마나 뻔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지난 2년보다 더 심한 검찰 대 범죄자의 투쟁장, 방탄 대 방탄의 대결장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공동대표는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양당 중 하나만 양자택일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도록 제3의 세력, 건전세력에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길고 긴 투표용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주시 공무원들이 2일 전북 전주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검수'에 참석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 “등원시 국정조사권 발동, 정권 홍보도구 전략 막을 것”

민주 정동영 후보, KBS 장악 대비비 문건 공개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전주 병)가 최근 KBS를 장악하기 위한 대비비 문건이 공개되고, YTN 역시 극우 유투버를 중용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가 노골화되자 국회에 등원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바로 잡겠다고 일갈했다.



도 없이 교체했을 때부터 이런 방송장악 기도는 예고돼 있었다”며 “공영방송 파괴 및 장악 시나리오가 드러난 만큼 윤 대

앞두고 내가 출연했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뉴스김 박지훈입니다’ 진행자인 박 변호사를 하차시키고 극우 유투버인 배승희 변호사로 교체한 것은 언론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1월22일 ‘뉴스김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정 후보는 “윤석열정부를 연성독재라고 규정한다. 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향적인 방송이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고, 진행자는 교체됐다.

정 후보는 “국민들의 70%가 정권 심판을 원하고 있고, 그 원인이 연성독재라고 대담한 것을 발미로 진행자를 교체한 것은 몰상식한 작태”라며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는데 이번 총선과정에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담론은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정치가 제 역할 못해 국민 삶 힘들어져”

무소속 방수형 후보, 지역 정치권에 ‘일침’

국내 유일 시 연수원 건립 추진 약속하기도

경쟁 후보인 민주김윤덕 후보 향해 쓴소리

무소속 방수형 후보(전주갑)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지역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우리 전북의 짙 버리사태로 인해 전북의 예산이 부당하게 삭감되는 전북의 위기가 닥치자 고향인 전북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려와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수형 후보측에 따르면 방수형 후보는 지난 1일 JT(전주방송) 주회로 열린 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더불어 부패하고 무능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회초리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으로 인해 민주화가 후퇴했고, 불공정한 경제정책 탓에 서민 경제는 벼랑 끝 사선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악행이 일어나는 전면에 서서 투쟁해왔다”면서 “특히 김건희 일가의 양평공공지구 특혜의혹과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의혹의 현장에서는 김건희일가를 직접 고발하며 윤정부의 악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활동을 하던 중 지난해

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 후보는 “지금 시급한 건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서민 경제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후보는 평화통일대에 국가산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지만 국가산단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일들과 수많은 갈등의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다”며 “차라리 팔복동의 1차와 2차 산단은 각각 60년대와 80년대에 시작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방 후보는 이날 전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유일의 AI연수원 건립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기성캐스터와 각종 방송 모델의 자리가 AI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는 10년 후에는 AI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되고 직업의 변화 또한 급격하게 바뀔다”라며 “이런 변화의 시대에 누군가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하지만 우리 지역에 출마하신 후보자 어느 누구도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방수형 후보는 “짙버리사태로 새만금을 망쳐버린 주역이 단수공정을 받아 내놓는 말들은 윤석열정부 공격하겠다는 말이 전부”라고 꼬집은 뒤, “나이가 나라를 망쳐놓은 현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의 후보는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돼 내놓는 말들이 웃기지도 않은 변명과 허무한 공약들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위기를 느껴 고향으로 내려와 정치 전면에 나서고자 준비한 그 많은 시간들은 민주당과 함께 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현역인 민주당 후보의 품수로 예비후보등록조차 못하고 무소속 후보가 돼 버렸다”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전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당선포 민주당으로 돌아가 제가 약속드린 일들을 전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익산, 문화복합관광 대표 도시로”

새미래 신재용 후보, 한옥마을 조성 · 워케이션 특화 등 제시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익산 갑)는 2일 함라 ‘익산한옥마을 단지’의 조성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의) 접근성 개선은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한옥마을단지의 워케이션 특화 단지로서의 매력을 증대시킬 것”이라 밝혔다.

신 후보는 “웰니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상태를 의미”한다며 “(각종) 양과리를 한옥마을과 연계해 한방·요양 병원, 체육시설 및 패션뷰티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우리 익산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겠다”며 공약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 정읍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 견인

임승식 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정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식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 과정에서 정읍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많은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정읍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전주권 전주 예수병원,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 정읍 아산병원 등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분부 산하에 응급, 외상 등 지정센터와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할 수 있어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질병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은 새 생명을 부여한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을 잃어 희망이 없는 의료 약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의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기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에 따른 첫 설립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로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추진하고 있다.

### 전북선관위, 각 기관 · 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달 도내 주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 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참여 촉진 위해 교통편의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운행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주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 등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4월 10일, 선거일에 투표소 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내 364개 노선에서 863회 운행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사전투표일인 4월 5일과 6일, 선거일에 투표소 이동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 131대와 일반 차량 32대 등 총 163대의 차량과 185명의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며,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 노선 및 이용방법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교통편의제도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당)과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며,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의 투표권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